

#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 연구\*

-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을 중심으로 -

남 영 주\*\*

## I. 머리말

오늘날 각 국가들은 정부가 제정한 기록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이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어 기록물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에 기록연구직이 신설되어 많은 인력이 채용되었고 기록관리 시스템의 혁신과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록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기록물들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 없이 관리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 결과 역사를 재현하거나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유실되거나 발굴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록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은 특정한 사상 또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분야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주제기록관’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sup> 주제기록관이 다루는 기록물들은 공공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민간기록물로서 의식적으로 수집·발굴하려는 노력 없이 그 가치를 평가 받기 전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매뉴스크립트<sup>2)</sup>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제기록관의 존재는 멸실·훼손이 높은 중요한 기록물들

\* 투고일자 : 2013. 11. 12    심사일자 : 2013. 12. 17    게재확정일자 : 2013. 12. 22

\*\* 영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1) 윤철진, 「대학 주제기록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0, 참조.

2) Theodore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pp.12-18, 기록물은

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공공영역의 기록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있는 그대로의 역사, 온전한 국민의 역사를 유지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제기록관의 의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주제기록관의 하나가 제노사이드 관련<sup>3)</sup> 주제기록관이다. 미국의 역사가 Gabriel Kolko는 20세기를 “전쟁의 세기(century of war)”라고 하였다.<sup>4)</sup> 또한 정치학자 Roger Smith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인종, 종교, 민족, 국적의 차이 때문에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를 6천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20세기를 “제노사이드의 시대(an age of genocide)”로 명명하기도 하였다.<sup>5)</sup>

인류는 제노사이드 재발 방지와 이를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각 지역에 기록관을 건립하였는데, 대부분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관이다.<sup>6)</sup> 주지하다시피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런데 제노사이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sup>7)</sup>로 불리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이다. 터키인에 의해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일어난 때는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이었다. 이후 계속된 학살과 강제이주를 통해 전체 201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을 위해 기념관을 건립하였다.<sup>8)</sup> 그런데 학살과 관련된 기록의 유지와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이관’의 과정을 거쳐 전문기록물 관리기관에 보관되는 ‘아카이브즈(archives)’와 ‘수집’된 기록물을 일컫는 ‘매뉴스크립트(manuscript)’로 구분할 수 있다.

3) 니콜라이 호바나시안, 이현숙 옮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한국학술정보(주), 2011, 참조. ‘제노사이드’란 용어는 1944년 법률학자 라파엘 램킨(1900~1959)이 국제법에서 집단학살을 범죄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제노사이드’(genocide)는 인종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가 결합된 것으로서 “일정한 민족, 인종, 종교 지역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 Gabriel Kolko, *Century of War: Politics, Conflicts, and Society since 1914*(New York: New Press, 1994).

5) Roger Smith, “Human Destructiveness and Politics: The Twentieth Century as an Age of Genocide” in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ed. Isidor Wallimann Dobkowski(Westport: Greenwood, 1987), p.21; 본 논문의 말미에 제시한 <부록1. 20세기의 대표적 제노사이드>를 통해 20세기에 발생한 제노사이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6) 현재 각 국가들이 건립한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을 홀로코스트 관련 주제기록관, 나머지는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부록2. 홀로코스트 주제기록관>과 <부록3. 제노사이드 주제기록관> 참조.

7) 최호근, 「전쟁과 제노사이드」, 『역사와 경계』 no.56, 2005, p.3, 재인용.

8)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http://www.genocide-museum.am/eng/index.php>)

한쪽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기록의 신빙성도 문제가 된다.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록물 수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홍보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증거 기록들을 의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sup>9)</sup>

이에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아르메니아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기록물 수집 정책과 수집 기록물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관련 국가와 기관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뫼에르 노라(Pierre Nora)가 ‘기억을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역사를 찾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sup>10)</sup> 단절된 역사적 사실을 메우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록물들은 향후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물들의 법적 가치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도 제노사이드는 인류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국내 기록학 분야는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대학기록관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12)</sup> ‘인권’과 관련된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

9) 니콜라이 호바나시안, 이현숙 옮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참조,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에 의해 ‘제노사이드’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 학술 문헌과 정치적 어휘로도 널리 통용되었는, 1960년대 초부터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와 함께 ‘아르메노사이드’(Armenocide)라는 용어가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르메노사이드’라는 용어의 창시자는 레바논의 아랍 역사가 무사 프린스(Moussa Prince)으로, 그는 ‘아르메노사이드는 가장 제노사이드적인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였다.

10) 윤택림, 「한국전쟁,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기억」, 『고대문화』 52(고려대), 2000, p.141, 재인용.

11) 클로리아 알베르티(유네스코), 「“고통의 기억” 남아메리카에서 인권 유린에 관한 아카이브」,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5, pp.39-40.

12) 최근의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주관, 「아시아문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호남문화연구』 37, 2005; 이범환,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일형, 「대학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조직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이정효, 「대학 수집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정명주,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허보운, 장경문, 「미술대학교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조형-아카이브』, 2009.

로는 노동기록관과 홀로코스트,<sup>13)</sup> 그리고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관에 관한 연구가<sup>14)</sup>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록학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제기록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지만, 제노사이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도 제노사이드 사건인 제주4·3사건<sup>16)</sup>, 거창양민학살사건, 경산코발트광산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은 이미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상당정도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당시의 국가폭력으로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록물 수집은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 10월 공식 발간되었지만 이를 통해 대량학살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산코발트광산사건도 2009년 12월 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에 의한 양민 학살’로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의 권고내용 중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경산코발트광산 현장을 잘 보존하여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생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아르메니아인 제노사

13)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집합적기억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조지영, 「노동기록관 설립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4)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동춘, 「민주화운동기념관, 왜 건립해야 하는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재화와 ‘민주화운동자료관’ 건립운동』,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기획학술 심포지움, 1999; 김영경·전명혁, 「기록관(Archives) 건립과정에서 아카이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민주화운동자료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001, 3; 김은실,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문소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경석,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혜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료실의 기록관리 운영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차준호,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 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8, 2008, p.143. 한국전쟁 전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들의 진상이 언론, 학계 연구, 정부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예비검속사건’(예비검속자학살), ‘형무소사건’(전국형무소재소자학살), ‘군·경토벌관련사건’(공비토벌작전으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 처형, 보복의 성격을 갖는 집단학살 사건들로 파악하였다.

16) 허호준, 「제주 4·3 항쟁과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vol4, 2000; 이동진, 「한국전쟁과 제노사이드-경북 영천군을 사례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5권 제1호, 2012년, 본 연구들은 대량학살 연구에 제노사이드 이론을 적용시킨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드 관련 주제기록관과 관련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 제노사이드 관련 기록관을 설립하거나 기록물 수집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제기록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기록물의 선별, 그리고 수집된 기록물이 지니는 의의를 통해 주제기록관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제기록관의 성격과 의의

1970년대 Howard Zinn은 미국 내의 영구보존 기록이 정부, 기업, 군대와 같은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빈곤하고 무력한 이들의 기록이야말로 영구보존의 암흑 속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7)</sup> 그는 이러한 기록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사람들의 삶, 바람, 요구 등 전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기록정보원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소외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나아가 사회가 유지해야할 ‘아카이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인류경험의 폭넓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풀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한 기록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공식적인 기록 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학문분야, 사회적 소수, 지역공동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주제기록관’이 설립되는데 일조하였다.

초기에는 주제기록관의 개념을 여성, 흑인과 같은 소수의 소외된 집단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한정하였지만, 주제기록관이 다루는 주제 분야는 대통령도서관으로부터 물리학과 같은 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sup>18)</sup> 특히 여성, 사회적 소수 및 빈곤층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들 개인과 그룹의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컬렉션, 구술사, 개인의 편지 등 비공식적 기록들의 중점적인 수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주제기록관은 비 제도권의 역사를 재현하는 공간으로<sup>19)</sup> 오늘날 주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17)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1975, p.5.

18)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ubjec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43, 1980, p.57.

위와 같이 주제기록관은 ‘특정주제’의 수집기록물인 매뉴스크립트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주제기록관은 ‘이관’의 과정을 거쳐 전문기록물 관리기관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기록물들을 보관하기에, ‘수집’ 영역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제기록관의 유형은 어떠한 주제의 매뉴스크립트를 수집·관리하는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유형에 따라 기관의 특징도 달리 나타난다.<sup>20)</sup> 주제에 따른 기록관의 유형을 정리한 연구 성과가 존재하는데, 아래 <표-1>이다.

<표-1> 주제기록관의 유형<sup>21)</sup>

주제유형	목적	사례
비제도권 사회적 소수	비제도권· 사회적 소수의 역사 보존 및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단절점의 복원	-홀로코스트 기념관 -노엘 버틀린 아카이브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삶을 복원하여 역사를 유지하고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	-UCLA Film & Television -펜실베이니아대학 민속아카이브
특정인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료와 활동증거를 보존하고,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이라는 균형 있는 역사적 시각 유지	-안창호 기념관 -김대중 도서관 -조지 미니 기념관
학문· 문화예술	해당분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자료의 제공, 학문연구와 소통의 장 제공	-호건 재즈 아카이브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 -아르코 아카이브

위 <표-1>에 의하면, 대표적인 제노사이드 기록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주제기록관의 주제 유형상 비제도권 사회적 소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사항은 주제기록관에서는 관련 기록물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Andrea Hinding가 제시한 ‘다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는 ‘문화의 여러 면이나 경험에 대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다큐멘테이션’을 위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록의 중요한 의미와 대표적인 특징 모두를 지닌 보존할만한 기록의 선별’을 주장하면서 ‘다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22)</sup> 이에 대한 의미로 ‘생산된 정보의 총량은 얼마이며, 어떻게 아키비스

19) 조지영, 「노동기록관 설립 방안 연구」, pp.12-13.

20) 윤철진, 「대학 주제기록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pp.14-17.

21) 윤철진, 앞의 논문, p.17.

22)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트들은 그 정보 중에서 보존할 부분들을 선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묻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이후 기록물 관리를 위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아카이브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종종 아카이브는 사회의 '집합적 기억'이라고 하였다.<sup>24)</sup> 즉, 주제기록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과거를 집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과 조직의 행위 혹은 활동이 반영된 사회의 '집합적 기억'의 재현 공간이며, '집합적 기억'의 기록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sup>25)</sup>

'집합적 기억'의 개념의 토대를 제시한 인물은 사회학자 Maurice Halbwachs이다. 그는 현재 속에서 미래와 과거가 합성·융합되며 역사는 재구성되고 시간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억이야말로 사회 속에서 얻어지며 그것을 되살리고 인식하고 배치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기억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기억이 집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하나는 타인들이 어떤 일에 대한 자아의 기억을 촉발하거나 그 기억의 형성보존에 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 성원들이 같은 경험을 겪음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이다.<sup>26)</sup> 즉, 時空을 함께 하는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는 동일한 신념을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록학적으로 '집합적 기억'은 다수의 개인과 조직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집합적 기억'의 의미가 내재된 아카이브를 통해 통제되는 과거가 드러날 때야말로 그 과거는 현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주제기록관을 통해 수집되는 기록물들은 '집합적 기억'의 보존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

*American Archivist* 54, 1991, p.46, 재인용.

23) Helen Willa Samuels은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① 기록되어야 할 주제를 선택하거나 확인하는 것, ② 조연자를 선별하고 전략을 위한 입지 확립, ③ 조사를 구조화하고 유용한 다큐멘테이션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 ④ 다큐멘테이션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것 등이 다.(Helen Willa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1986, pp.116-123).

24) Kenneth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2000, p.29.

25)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집합적 기억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참조.

26) 김영범 외,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pp.576-577.

27) Kenneth E. Foote, 앞의 논문, pp.30-31.

본 연구의 대상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 역시 ‘집합적 기억’의 장소이며, 관련 기록물들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록물 생산량의 급증과 함께 2007년 기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공기록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된 기록물 뿐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가운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의 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도 그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 범위의 확대는 기존에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던 기관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속 기관에 특화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여 역사를 정립하고 기록물을 통한 지식정보를 축적하여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록관 또는 역사관의 설립이 증가되었다. 오늘날 주제기록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주제기록관 중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관에서<sup>28)</sup> 수집된 기록물들은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고,<sup>29)</sup>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sup>30)</sup>

이처럼 주제기록관에서 수집하는 기록물들은 주로 공공영역에서 벗어난 소수와 집단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록물 수집은 역사적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역사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후손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제기록관으로는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2년 1월 29일 출범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http://db.kdemocracy.or.kr/)와 1994년 출범한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관련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는 ‘5·18기록관’(http://archives.518.org/)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자료관으로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민주주의 아카이브’(http://www.demopark.or.kr/main/sub\_archive.asp)가 대표적이다.

29) 글로리아 알베르티(유네스코), 「“고통의 기억” 남아메리카에서 인권 유린에 관한 아카이브」, pp. 39-40;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진의 신빙성에 의해 법정에서 최근 법적인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의 경우 1988년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청문회에서 증거로 활용되었다.

30) 대표적인 예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http://archives.kdemo.or.kr/Contents)은 전태일과 노동운동, 문익환과 통일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6월 민주항쟁, 반민특위,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차준호,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15-22, 참조.



## 2.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와 인정문제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아르메니아인 사회는 1877년 일어난 러시아-투르크 전쟁 시기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의 북동부를 러시아가 지배하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령 내의 아르메니아인을 지원하고 1878년에는 아나톨리아 일대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인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한 개혁을 약속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령 내의 아르메니아인 민족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터키 영토의 오스만 제국에서 교체된 청년투르크 정부에 의해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연속적인 주민의 학살과 강제 이주가 조직되고 실행되었다.<sup>31)</sup>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학살은 1894~1895년, 1896년, 1909년, 1915~1918년, 그리고 1919~1923년까지 계속되었는데,<sup>32)</sup>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아르메니아인 대학살(1894~1923)

시기(년)	원인	사상자(명)
1894-1895	술탄 지역에서 쿠르드 지도자들이 아르메니아 주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했지만, 터키 정부는 쿠르드의 조세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시켜왔던 국가 세금의 체납지불을 요구→아르메니아인은 이중 과세라는 이유로 거부	5만~10만
1896	아르메니아인 다쉬낙 그룹이 오스만 은행 건물을 장악하고 은행 폭발을 위협하면서 터키 정부의 정치 개혁을 요구	6천 이상
1909	청년 투르크당이 터키 권력을 장악한 후 대학살 시행 (범투르크주의)	3만
1915~1918	터키 동부 지역의 아르메니아인 주민들을 시리아의 사막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 아르메니아인 군인들은 군대에서 제거	1백 50만 (1백만 이상 난민 발생)
1919~1923	케말리즘과 관련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빈민을 위한 경제적 재분배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함)	10만여

위 <표-2>와 같이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학살은 5차례 발생하였는데, 그 중 4번째인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동안 일어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보고 있다. 이 대학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을

31) 김영술,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문제와 국제관계-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 pp.425-426.

32) 김영술, 위의 논문, pp.426-433, 참조.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기에도 금기시된 이슈였다. 소비에트 초창기부터 크렘린 당국은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에 반 소비에트적 민족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이 사건을 언급하는 지식인들은 가치 없이 반 소비에트 민족주의자로 몰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하였다. 이런 식으로 스탈린이 권좌에 있는 동안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치열한 침묵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들어선 뒤 쌓였던 아르메니아 민족의 한은 폭발하였다.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50주년을 맞은 1965년 4월 24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20만 명의 시민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시위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위로 소비에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크렘린 당국에서는 이 시위를 반 소비에트 시위로 몰아 시위 군중들에게 발포를 명령했으나, 예레반 정부의 수반은 크렘린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였다. 물론 예레반의 정부 수반은 명령 거부로 사퇴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크렘린 당국도 아르메니아 대학살 문제에는 간섭하기를 포기했고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대한 공론화는 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대학살이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고 언급하면서 터키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의 희생이 전쟁 중 적대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 뿐 의도적으로 특정 인종에 가해진 집단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1915년 당시 터키 동북부 아나톨리아 지역에는 소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1차 대전으로 러시아가 오스만을 침공했을 때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치독립을 위해 러시아와 연합해 오스만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살은 아르메니아인들의 파르티잔투쟁 결과 생겨난 전쟁의 산물이지, 인종학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4)</sup> 또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들이 주장하는 인종, 민족, 종교 때문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이 무장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남부 시리아 레바논 지역으로 이들을 강제 이주시켰다고한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과정에서 오스만이 아르메니아인 인종 학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1923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성립한 터키는 아르메니아인 학살은 어디까지나 전시하의 강제 이주로 인해 대부분의 아르메니아인이 사망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대전 중에 오스만 제국 전체에서 희생된 사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문제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최초의 아

33)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술의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문제와 국제관계-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4) 김영술, 위의 논문, p.418, 주1)과 주2)를 통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사건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은 1965년 우루과이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유엔의 소수 민족의 차별 방지와 보호 위원회, 전쟁 범죄 유엔위원회, 세계 교회 협의회 등에서 제노사이드로 인정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sup>35)</sup>

<표-3>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사례

일시	주체(국가)	주요 내용
1965년	세계평화지지위원회 (World Congress of Peace Supporters: 핀란드 헬싱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승인 터키 통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
1973년	유엔 산하 소수민족차별 금지와 보호에 대한 인권리 분과 위원회(제26회 분과위원회)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규정 →1979년 분과위원회에서 재확인
1983년	세계교회회의(World Council of Churches)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
1984년	민족들의 상임법정특별회의 (the ad hoc Session of the Permanent Court of Nations, 파리)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승인
1987년	유럽의회(European Council)	“유엔의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15-1917년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다”는 定則을 통과
2006년	벨기에와 스위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자에게 형사 책임제(4만 5천유로부터 1년 징역까지)를 도입
2006년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홀로코스트와 같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2009년	웨일즈, 바스크 의회(스페인)	아르메니아의 제노사이드를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한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캐나다, 바티칸, 호주 등 20개국이다.

35) 김영술, 위의 논문, pp.437-439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5년, 1984년, 1996년에 하원 의원들과 42개 주가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비난하였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아랍,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공동체에서도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 중동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터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이 아르메니아 입장을 지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사실 백악관은 터키로부터 그들의 영공을 닫겠다는 협박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제노사이드 인정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아르메니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르메니아에 320만 명, 러시아에 약 250만 명, 미국에 100만 명 이상, 프랑스에 50만 명 등을 비롯해 107개국에 최대 1천 만 명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하고 있다.<sup>36)</sup>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치적 힘은 로비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내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는 유대계에 버금가는 로비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의회에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였다. 유럽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네덜란드 아르메니아 기구 연맹(FAON)에 속하는 ‘4월 24일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부인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로비를 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네덜란드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기독교 통일당에 의해 발의되기도 하였다.<sup>37)</sup> 이러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논쟁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터키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발생하기 전인 1939년 8월 22일, 폴란드 침입에 앞서 오베르잘즈부르크에서 열린 독일 최고사령관과의 미팅에서 히틀러는 “누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기억하겠는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38)</sup> 오늘날 인류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부정한다면 또 다시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은 중요한 사안이다.

36) [http://monitoring.rossija.info/more.php?id=38\\_0\\_1\\_10\\_M5](http://monitoring.rossija.info/more.php?id=38_0_1_10_M5).

37) 김영술, 앞의 책, pp.441-447.

38) 니콜라이 호바나시안, 이현숙 옮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p.147.

### Ⅲ.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의 수집 프로그램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수집 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기록관의 수집 프로그램(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기관이 수집하는 기록물의 범주를 파악해야 한다.

기록관은 기능적 관점에 따라 조직형 기록관(institutional repository)과 수집형 기록관(collecting reposit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9)</sup> 조직형 기록관은 모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인 이관을 통해 관리하고 보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수집형 기록관은 잠재적 기증자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기록물을 현지권유 프로그램(field solicitation program)에 의해 수집(acquisition)하여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모기관이 생산한 활동의 결과물을 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기관내부의 행정적, 재정적, 법적인 필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형 기록관과는 달리, 수집형 기록관은 보다 상세하고 전문화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함으로써 기관내부 보다는 기관외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일종의 봉사기관 혹은 연구기관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수집형 기록관은 해당 기록관의 사명이 함축된 수집정책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존재를 규정받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수집형 기록관에서 수집되는 기록물은 대체로 단일한 출처이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다. 이렇게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는 수집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정책을 통해 초기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구조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주제 혹은 경험에 대한 기록 관리를 표방하는 수집형 기록관의 경우 추상적으로 그려진 전체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집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기록관에서 관리대상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를 대한 명확한 한계선을 제시하고 출발한다면 기관 운영의 뚜렷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집형 기록관의 경우 특정주제로 통합될 수 있는 기록물일 경우에는 그것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수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은 수집형 기록관에 해당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라는 특정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관련 기록들을 특정 국가와 개인만이 아닌 다양한 출처로부터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기록물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39)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p.17-19.

기록관의 수집 정책에 대해 파악해보아야 한다. 현재 파악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연구기관은 아래와 같다.

- 1)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sup>40)</sup>
- 2) Armenian National Institute<sup>41)</sup>
- 3) GOMIDAS INSTITUTE<sup>42)</sup>
- 4) The Zoryan Institute<sup>43)</sup>

위 4개의 주제기록관 중 1)은 기관 명칭에서 주목을 끈다. 앞서 살펴본 <부록2. 홀로코스트 주제기록관>과 <부록3. 제노사이드 주제기록관>의 경우 주로 ‘Memorial museum’, ‘History Museum’, ‘Memorial Centre’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useum’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지만<sup>44)</sup> ‘Memorial’, ‘Memorial Hall’, ‘History Museum’, ‘Monument’, ‘Library & Museum’<sup>45)</sup> (‘Museum & Library’)등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소속된 기념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추모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념관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애도와 슬픔의 의미를 함유한 ‘Memorial’이나 ‘Memorial Museum’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6)</sup> 이는 우리말로 ‘추모 박물관’, ‘역사박물관’, ‘추모센터’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sup>47)</sup>

40) <http://www.genocide-museum.am/eng/index.php> (2013.05.01), 본 연구는 웹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41) <http://www.armenian-genocide.org/index.htm> (2013.05.10).

42) <http://www.gomidas.org/> (2013.06.10).

43) <http://www.zoryan.org/Genocide.htm> (2103.05.21).

44) 1946년 유네스코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국제박물관협회(ICOM)에서는 1946년 이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박물관의 정의를 7차에 걸쳐 개정하였고, 현재는 2007년 8월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승인한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하고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류와 인류의 환경에 관한 유형, 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 (<http://icom.museum/who-we-are/the-vision/museum-definition.html>)

45) 미국에 건립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은 Museum & Librar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 보관, 연구, 교육 등 도서관(Library)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6) 박희명, 「기념관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47) 우리 학계도 ‘인물기록관’(이연창, 「인물 기록관(Personal Archives)구축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주제기록관’(정영란, 앞의 논문 2003)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1)은 다른 제노사이드 주제기록관과는 달리 ‘MUSEUM-INSTITUT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INSTITUTE’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록관 구조는 기록물 수집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기록관의 ‘미션’에 나타나 있다. 아래는 1)기록관의 미션 중 일부분으로 이를 통해 기관의 수집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sup>48)</sup>

To promote the collection, study and presentation of the visual textual materials, including also artifacts, related to the life of the Western Armenians in the Ottoman Empire before and during the Genocide.

이 기록관에서는 기록관의 역할로 기록물 수집, 연구, 보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기간과 오스만 제국 이전의 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삶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INSTITUTE의 ‘Goals & Endeavors’에도 기록물 수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제시하였다.

The main research goal of the institute is to study the Armenian Genocide that occurred in the Ottoman Empire. The focus is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of historical-documentary materials, archived documents, photographic documentation and the accumulation of new data. The Institute obtains materials and documents from various international archives. The Museum also collects, catalogues and archives eye-witnesses accounts of Genocide. The archived documents and accounts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AGMI.(밑줄 필자)

INSTITUTE에서는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catalogues 제작과 제노사이드 관련 eye-witnesses accounts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catalogues는 기록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 북이다. 여기에는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catalogues 제작은 기록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INSTITUTE에

48) <http://www.genocide-museum.am/eng/statement.php> (2013.05.21).

서 기록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Armenian National Institute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연구기관이다. 기관의 ‘Mission and Objectives’에 나타난 수집정책은 아래와 같다.

To collect and organize documentation attesting to and preserving the memory of the Armenian Genocide.

4)The Zoryan Institute<sup>49)</sup>는 미국과 캐나다 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연구와 기록물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기관 미션은 아래와 같다.

The mission is to provide a “scholarly center devoted to the documentation, study,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related to the life of the Armenian people in the recent past and the present, and within the context of larger world affairs.” The Website has documents and books available that would be of interest to teachers pursuing in depth courses on the Armenian Genocide. Site includes a bibliography for the 1894-96 massacres and for the denial of the Genocide; also includes a scholarly essay (assumed author Vahakn Dadrian) refuting claims made by the Turkish Embassy in Washington.

위 기관은 수집 기록물에 대한 다큐멘테이션과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록물 수집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처럼 4곳의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연구기관 중 기관의 미션에 기록물 수집정책이 명시된 기관은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와 Armenian National Institute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해 수집되고 있는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

49) 3)GOMIDAS INSTITUTE은 영국 런던에 설립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연구 기관이다. 이 기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는 기관 미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 VI.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수집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sup>50)</sup>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에서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과 관련한 기록물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아래 <자료-1>과 같이 ‘Documents’, ‘Research’, ‘Recognition’으로 구분하여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국가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둘째 본 기관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화한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자료-1>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의 기록물 제공 화면<sup>51)</sup>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					
Home	Pre-Genocide Armenia	Armenian Genocide	Documents	Research	Recogn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in</li> <li>Delegations</li> <li>Site map</li> <li>Feedback</li> <li>Contacts</li> <li>Link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story of Armenia</li> <li>Pre-Genocide photo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is Genocide</li> <li>Armenian Genocide</li> <li>Chronology</li> <li>Photos of Armenian Genocide</li> <li>Mapping Armenian Genocide</li> <li>Cultural Genocide</li> <li>Rememb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n</li> <li>British</li> <li>German</li> <li>Russian</li> <li>French</li> <li>Austrian</li> <li>Turkis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bliography</li> <li>Survivors Stories</li> <li>Eye-Witnesses</li> <li>Media</li> <li>Quotations</li> <li>Public Lectur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tes</li> <li>International organizations</li> <li>Provincial governments</li> <li>Public petitions</li> </ul>

각 주제별로 수집된 기록물의 일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국가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한 것으로, 미국 외 6개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주로 각 국의 의회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기록이다. 둘째, 본 기관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아카이브화한 기록물은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카이브 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록물을 소개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Bibliography**-Selected bibliography on Armenian Genocide

② **Survivors Stories**-HE WAILING WELL, By Hagop Martin Deranian 외 4건.

50) 본 연구는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51) <http://www.genocide-museum.am/eng/index.php>(2013.06.01).

③ **Eye-Witnesses**-THE TURKISH WOMAN-An incident from the Edesia (Urfa) massacre 외 다수.<sup>52)</sup>

④ **Media**-“The Assassination of a Race” The Independent, October 18, 1915 외 5건.

⑤ **Quotations**-Arnold Toynbee (British historian, 1915), “All these atrocities have been committed toward Armenians even though they have not done anything to invite them.” 외 15건.

⑥ **Public Lectures**-May 13, 2008-Mesrop Center’s “Summer Courses 2008” in AGMI. 외 9건.

셋째, 국제사회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자료를 수집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① **States-Resolutions, Laws, and Declarations**-Sweden\_Parliament\_Resolution-March 11, 2010<sup>53)</sup> 외 46건.

② **International organizations**-The Elie Wiesel Foundation for Humanity-April 9, 2007 외 14건.

③ **Provincial governments**<sup>54)</sup>

④ **Public petitions**-In connection to the voting in the Swedish Parliament on June 11, 2008, regarding the four motions calling upon Sweden to recognize the 1915 Genocide in Ottoman Turkey-June 9, 2008,<sup>55)</sup> 외 2건.

그리고 INSTITUTE에서 Collection으로 분류된 항목들을 통해 소장 기록물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개인 기록 Collection**-Collection of Jevan Cheloyanc 외 19건.

② **Danish collection**-Collection of Tlkatin village in Kharberd 외 3건.

③ **Collections of Photos and Postcards**-Photo collection of Yermakov 외 5건.

④ **Collection of historic-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Armenia**-Photo collection of the Armenian refugees in Aleppo 외 4건.

⑤ **Collection of Old Newspapers and Journals**-Periodicals concerning Hamidian

52) [http://www.genocide-museum.am/eng/eye\\_witnesses11.php](http://www.genocide-museum.am/eng/eye_witnesses11.php)(2013.06.01), 이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아르메니아어와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다. Here You can see the full text in Armenian. Click on download와 Here You can see the full text in Russian. Click on download.

53) [http://www.genocide-museum.am/eng/Sweden\\_Parliament\\_Resolution.php](http://www.genocide-museum.am/eng/Sweden_Parliament_Resolution.php)(2013.06.01), 전문을 download할 수 있다.

54) US states(Alaska 외 39개 주), Italy(Comune Di Bertiolol 외 34개), Australia(Province of New South Wales), Argentina(Province of Cordoba 외 1개), Canada(British Columbia 외 2개), Switzerland(Geneva Canton 외 1개), Great Britain, Wales.

55) <http://www.genocide-museum.am/eng/june9.php>(2013.06.02), 전문을 download할 수 있다.

massacres 외 2건.

⑥ Collection of maps—Collection of Ottoman period items 외 7건.

Armenian National Institute에서는 'Sample Archival Documents on the Armenian Genocide'를<sup>56)</sup> 설치하여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2> Sample Archival Documents on the Armenian Genocide의 기록물  
제공화면

U.S. ARCHIVES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cord Group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Decimal File 867, Internal Affairs of Turkey Decimal File 860J, Internal Affairs of Armenia)	
Appeal from the Catholicos of the Armenian Church to protect Armenians. April 27,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Secretary of State William Jennings Bryan's response to the Catholicos' appeal to protect Armenians. April 28,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of Allied warning to the Ottoman government to stop the massacres of Armenians. May 29,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that Ottoman Turkey is seeking to exterminate the Armenian nation. July 16,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Secretary of State Robert Lansing's response to news that Ottoman Turkey is pursuing a policy of genocide against the Armenians. July 16,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on the treatment of Armenian children in Trebizond. July 20,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on the deportation of Armenians from Zeitun. July 21,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from a German missionary on the massacre of Armenians from Erzerum. July 31, 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flections on the role of Talaat Pasha in the Armenian Genocide. September 7, 1921.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BRITISH ARCHIVES	
(United Kingdom, Public Record Office Foreign Office Records Class 371, Diplomatic Records)	
Report by a resident of Syria on the condition of Armenian deportees. November 27, 1916.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First-hand account by a Turkish army officer on the deportation of Armenians from Trebizond and Erzerum. December 26, 1916.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Memorandum by the 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 outlining the strategy for implementing the Armenian Genocide. 1914-1915.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on the massacre of Armenians in Cilicia under French administration. March 7, 1920.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Report on the forced exile of the remaining Armenians from Aintab and Marash. November 15, 1922.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Statistics on the pre-war and post-war Armenian population in Bilejik, Bardizag, and Hendek. <a href="#">View image</a>   <a href="#">Read text</a>

<자료-2>과 같이 Armenian National Institute는 U.S. ARCHIVES와 BRITISH ARCHIVES에서 보존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록정보를 View im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은 두 기관 모두 대부분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The Zoryan Institute에 설치된 Archive의 기록물 제공화면이다.

56) <http://www.armenian-genocide.org/sampledocs.html>(2013.05.01).

<자료-3> The Zoryan Institute Archive의 기록물 제공화면<sup>57)</sup>

이 기관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처럼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4개의 기관 중 기록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3개의 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수집 기록물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록으로는 관련 법률 및 결의문(선언문), 관련 논문, 보고서, 강연 내용이다. 둘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구술기록이다. 여기에는 생존자의 증언과 목격자 진술이 대표적이다. 셋째, 미디어로 신문과 저널 등이다. 넷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 당시의 지도이다.

수집 기록물의 컬렉션 별 특성을 살펴보면, 'INSTITUTE'가 유일하게 기록물의 컬렉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중 '개인 기록 Collection'과 'Danish collection'은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상황을 기록화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Collections of Photos and Postcards'와 'Collection of historic-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Armenia'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부족하지만 아르메니아인의 역사와 삶을 전하는 기록물들로 제노사이드 당시의 아르메니아의 정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위와 같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기록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제노사이드가 발생했을 당시 생산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둘째, 각 나라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즉, 기록물의 출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법률, 결의안, 논문 등에 의존하고 있기에 증거의 자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그 유형 또한

57) [http://www.zoryan.org/archive/\(2013.05.01\)](http://www.zoryan.org/archive/(2013.05.01)).

기록으로 매우 단조롭다. 셋째, 박물이 거의 없다. 이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황상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재 제노사이드 피해자 중 생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술기록도 많이 부족하다.

## VI. 맺음말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를 접근하였다. 이에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아르메니아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기록물 수집 정책과 수집 기록물들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결론삼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주제기록관은 수집형 기록관에 해당된다. 각 기관들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다양한 출처로부터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기록물 수집기관 중 기관의 미션에 기록물 수집정책이 명시된 곳은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와 Armenian National Institute이었다.

둘째, 유일하게 'INSTITUTE'를 통해 기록물의 컬렉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개인 기록 Collection'과 'Danish collection'은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상황을 기록화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Collections of Photos and Postcards'와 'Collection of historic-cultural monuments of Western Armenia'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부족하지만 아르메니아인의 역사와 삶을 전하는 기록물들로 제노사이드 당시의 아르메니아의 정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기관이 다른 제노사이드 추모기록관과 달리 기관의 명칭을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라고 한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기관은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과 보존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공화국 수립 이전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하고 있었다.

셋째,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과 관련된 기록물은 주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한 국가들이 생산한 기록들과 관련 기관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화한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수집 기록물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록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생존자의 증언과 목격자 진술이 포함된 구술기록, 신문과 저널, 지도 등이 수집되고 있다. 다른 홀로코스트 기록관과 달리 박물관이 전무하였다.<sup>58)</sup>

다섯째, 홀로코스트 주제기록관과 달리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관련 기록관은 대학살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록이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해 아르메니아 공화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아르메니아인들과 각 국,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인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기록물 수집이라는 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집 기록물의 매체별 유형이 많이 단조롭고 사건 발생 당시의 기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수집 기록물들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인정받는데 널리 기여할 것이다.

#### <부록 1. 20세기의 대표적 제노사이드><sup>59)</sup>

시기(년)	장소	가해자	희생자	전쟁
1915-16	터키	오스만제국	아르메니아인	1차 세계대전
1932-33	소련	소련	우크라이나	× (농업집단화)
1933-45	유럽	독일	유대인	2차 세계대전
1939-45	유럽	독일	집시	
1941-44	소련	소련	독일계/체첸계 등	2차 세계대전
1950-현재	티베트	중국	티베트 인	×(침략/강압통치)
1965-6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자 등	×(정정불안정)
1967-70	비아프라	나이지리아	이보 부족 등	내전
1971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	독립전쟁	
1972	부룬디	투치족	후투족	×(정정불안정)
1975-79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캄보디아인/화교/베트남인 등	×(내전/국제전)
1975-99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인/화교	×(침략/저항)
1983-현재	수단	수단	딩카족	내전
1992-95	보스니아	세르비아	회교도	내전
1994	르완다	후투족	투치족	내전

58) 정영란, 앞의 논문, pp.47-83, 참조, 홀로코스트 주제 기록관의 경우 수집물의 매체 유형별 특성으로 기록, 예술품과 유물, 사진, 영상물, 구술, 음악 등이다. 또한 수집물의 컬렉션별 특성으로는 개인컬렉션, 주제컬렉션, 지역(국가)컬렉션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59) 최호근, 「홀로코스트의 공간적 재현: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대표적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제18호, p.9, 학자들마다 제노사이드 기간의 산정과 전쟁 유무를 판단하는데 차이는 있다.

## <부록 2. 홀로코스트 주제기록관>

1. 로벤섬 박물관(Robben island museum, 남아공(위치), 1997(설립연도))  
[www.robben-island.org.za](http://www.robben-island.org.za)
2. 케이프타운 홀로코스트 센터(Cape Town Holocaust Centre, 남아공, 1999)  
[www.ctholocaust.co.za](http://www.ctholocaust.co.za)
3. 더반 홀로코스트 센터(Durban Holocaust Centre, 남아공, 2008)  
[www.ctholocaust.co.za](http://www.ctholocaust.co.za)
4. 요하네스버그 홀로코스트센터(Johannesburg Holocaust Centre, 남아공, 2008)  
[www.ctholocaust.co.za](http://www.ctholocaust.co.za)
5. 테러의 지형(Topographie Des Terrors, 독일, 1987)  
[www.topographie.de](http://www.topographie.de)
6. 유대박물관(The Jewish Museum, 독일, 1999)  
[www.juedisches-museum-berlin.de](http://www.juedisches-museum-berlin.de)
7. 베를린 유대인학살 기념관(Berlin's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독일, 2005)  
홈피 없음
8. 마이애미 홀로코스트 기념관(The Holocaust Memorial Miami beach, 미국, 1995)  
[www.holocaustmmb.org](http://www.holocaustmmb.org)
9.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미국, 1993)  
[www.ushmm.org/museum](http://www.ushmm.org/museum)
10. 관용의 박물관(the Museum of Tolerance, 미국, 1993)  
[vwww.museumoftolerance.com](http://vwww.museumoftolerance.com)
11. 휴스턴 홀로코스트 뮤지엄(Holocaust museum, Houston, 미국, 1996)  
[www.hmh.org](http://www.hmh.org)
12. 유대인 유산 박물관(The Museum of Jewish Heritage-A Living Memorial to the Holocaust, 미국, 1997)  
[www.mjhnyc.org](http://www.mjhnyc.org)
13. 플로리다 홀로코스트 기념관(Florida Holocaust Museum, 미국, 1999)  
<http://www.flholocaustmuseum.org/>
14. 홀로코스트 센터(The Holocaust Centre, 영국, 1995)  
<http://holocaustcentre.net>
15.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Sydney Jewish Museum, 호주, 1992)  
[www.sydneyjewishmuseum.com.au](http://www.sydneyjewishmuseum.com.au)

16.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이스라엘, 1957)  
www.yadvashem.org
17. 몬트리올 대학살 기념관(the Montrial Holocaust Memorial Centre, 캐나다, 2003)  
www.mhmc.ca/en
18.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제2수용소)<sup>60)</sup>(Auschwitz-Brikenau, 폴란드, 1947)  
www.auschwitz.org.pl
19. 아우슈비츠 국립기념관(국립 전시관-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폴란드, 1960)  
www.auschwitz.org.pl
20. 쇼아기념관(Shoah Memorial, 프랑스, 1956)  
www.memorialdelashoah.org
21. 대학살 기념센터(the Budapest Holocaust Memorial Centre, 헝가리, 2004)  
www.hdke.hu

### 〈부록 3. 제노사이드 주제기록관〉

1. 무람비 학살희생자 기념관(Mueambi Genocide Memorial, 르완다, 2004)  
http://www.kigalimemorialcentre.org/old/index.html
2. 은타리마 교회 기념관(Ntarama Roman Catholic Church Memorial, 르완다, 2004)  
http://www.kigalimemorialcentre.org/old/index.html
3. 키갈리기념센터(Kigali Memorial center, 르완도, 2004)  
http://www.kigalimemorialcentre.org/old/index.html
4. 스레브레니카 희생자 기념관(Serbrenica Memorial and Cemetery, 보스니아, 확인)  
웹 사이트 없음
5. 에레반 기념관(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 아르메니아, 2007)  
www.genocide-museum.am
6. 난징대학살기념관(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중국, 1985)  
www.nj1937.org
7. 툴슬랭 박물관(Toul Sleng, 캄보디아, 1980)  
웹 사이트 없음

---

60) 1999년 ‘오시비엔침 소재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박물관’으로 변경(Memorial and Museum Auschwitz-Birkenau).



## 참 고 문 헌

- Teodore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 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8, 2008.
- 글로리아 알베르티(유네스코), 「“고통의 기억” 남아메리카에서 인권 유린에 관한 아카이브」,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5.
- 김영범 외,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 니콜라이 호바나시안, 이현숙 옮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한국학술정보(주), 2011.
- 박희명, 「기념관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2011.
- 윤철진, 「대학 주제기록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택림, 「한국전쟁,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기억」, 『고대문화』 52, 2000.
- 이동진, 「한국전쟁과 제노사이드-경북 영천군을 사례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5권 1호, 2012년.
-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집합적기억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지영, 「노동기록관 설립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최호근, 「전쟁과 제노사이드」, 『역사와 경계』 no.56, 2005.
- 허호준, 「제주 4·3 항쟁과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vol4, 2000.
-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1975.
- Helen Willa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1986.
- Kenneth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2000.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ubjec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43, 1980.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 1991.

#### <인터넷 사이트 주소>

1. THE ARMENIAN GENOCIDE MUSEUM-INSTITUTE-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ARMENIA.  
(<http://www.genocide-museum.am/eng/index.php>)
2. Armenian National Institute  
(<http://www.armenian-genocide.org/index.htm>)
3. GOMIDAS INSTITUTE  
(<http://www.gomidas.org/>)
4. The Zoryan Institute  
(<http://www.zoryan.org/Genocide.htm>)